

세상이 뒤집어 졌을때 When the world turned upside down

Message #13, 사도행전 Acts 10: 1-23

제목 : 손님 또는 주인?

Title: Guest or Host?

사도행전 Acts 10:1-8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이탈리아 부대라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다.

그는 경건한 사람으로 온 가족과 더불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유대 백성에게 자선을 많이 베풀며,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어느 날 오후 세 시쯤에, 그는 환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천사를 똑똑히 보았다. 그가 보니, 천사가 자기에게로 들어와서, “고넬료야!” 하고 말을 하는 것이었다.

고넬료가 천사를 주시하여 보고, 두려워서 물었다. “천사님, 무슨 일입니까?” 천사가 대답하였다. “네 기도와 자선 행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신다.

이제, 옹바로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라고도 하는 시몬이라는 사람을 데려오너라.

그는 무두장이인 시몬의 집에 묵고 있는데, 그 집은 바닷가에 있다.”

그에게 말하던 천사가 떠났을 때에, 고넬료는 하인 두 사람과 자기 부하 가운데서 경건한 병사 하나를 불러서,

모든 일을 이야기해 주고, 그들을 옹바로 보냈다.

At Caesarea there was a man named Cornelius, a centurion of what was known as the Italian Cohort, a devout man who feared God with all his household, gave alms generously to the people, and prayed continually to God. About the ninth hour of the day he saw clearly in a vision an angel of God come in and say to him, “Cornelius.” And he stared at him in terror and said, “What is it, Lord?” And he said to him, “Your prayers and your alms have ascended as a memorial before God. And now send men to Joppa and bring one Simon who is called Peter. He is lodging with one Simon, a tanner, whose house is by the sea.” When the angel who spoke to him had departed, he called two of his servants and a devout soldier from among those who attended him, and having related everything to them, he sent them to Joppa.

사도행전 Acts 10:10:9-11

이튿날 저들이 길을 가다가, 옹바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베드로는 기도하려고 지붕으로 올라갔다. 때는 오정쯤이었다.

그는 배가 고파서, 무엇을 좀 먹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다. 사람들이 음식을 장만하는 동안에, 베드로는 황홀경에 빠져 들어갔다.

그는, 하늘이 열리고,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네 귀퉁이가 끈에 매달려서 땅으로 드리워져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

The next day, as they were on their journey and approaching the city, Peter went up on the housetop about the sixth hour to pray. And he became hungry and wanted something to eat, but while they were preparing it, he fell into a trance and saw the heavens opened and something like a great sheet descending, being let down by its four corners upon the earth.

사도행전 Acts 10:12-16

9.이튿날 저들이 길을 가다가, 옹바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베드로는 기도하려고 지붕으로 올라갔다. 때는 오정쯤이었다.

10.그는 배가 고파서, 무엇을 좀 먹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다. 사람들이 음식을 장만하는 동안에, 베드로는 황홀경에 빠져 들어갔다.

그는, 하늘이 열리고,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네 귀퉁이가 끈에 매달려서 땅으로 드리워져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

In it were all kinds of animals and reptiles and birds of the air. And there came a voice to him: "Rise, Peter; kill and eat." But Peter said, "By no means, Lord; for I have never eaten anything that is common or unclean." And the voice came to him again a second time, "What God has made clean, do not call common." This happened three times, and the thing was taken up at once to heaven.

사도행전 Acts 10:17-18

베드로가, 자기가 본 환상이 대체 무슨 뜻일까 하면서, 속으로 어리둥절하고 있는데,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서, 문 앞에 다가섰다.

그들은 큰 소리로 베드로라는 시몬이 여기에 묵고 있는지를 묻고 있었다.

Now while Peter was inwardly perplexed as to what the vision that he had seen might mean, behold, the men who were sent by Cornelius, having made inquiry for Simon's house, stood at the gate and called out to ask whether Simon who was called Peter was lodging there.

사도행전 Acts 10:19-23

베드로가 그 환상을 곰곰이 생각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말씀하셨다. "보아라, 세 사람이 너를 찾고 있다.

일어나서 내려가거라. 그들은 내가 보낸 사람들이니,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거라."

그래서 베드로는 그들에게 내려가서 물었다. "보시오, 내가 당신들이 찾고 있는 사람ियो. 무슨 일로 오셨소?"

그들은 베드로에게 대답하였다. "고넬료라는 백부장이 보내서 왔습니다. 그는 의로운 사람ियो,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온 유대 백성에게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그는,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집으로 모셔다가 말씀을 들으라는 지시를, 거룩한 천사에게서 받았습니니다."

베드로는 그들을 불러들여서 묵게 하였다. 이튿날 베드로는 일어나서 그들과 함께 떠났는데, 옴바에 있는 신도 몇 사람도 그와 함께 갔다.

And while Peter was pondering the vision, the Spirit said to him, "Behold, three men are looking for you. Rise and go down and accompany them without hesitation, for I have sent them." And Peter went down to the men and said, "I am the one you are looking for. What is the reason for your coming?" And they said, "Cornelius, a centurion, an upright and God-fearing man, who is well spoken of by the whole Jewish nation, was directed by a holy angel to send for you to come to his house and to hear what you have to say." So he invited them in to be his guests. The next day he rose and went away with them, and some of the brothers from Joppa accompanied him.

사도행전 Acts 10:23b

이튿날 베드로는 일어나서 그들과 함께 떠났는데, 옴바에 있는 신도 몇 사람도 그와 함께 갔다.

The next day he rose and went away with them...

누가복음 Luke 9:23-24

그리고 예수께서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려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오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And he said to all, "If anyone would come after me, let him deny himself and take up his cross daily and follow me. For whoever would save his life will lose it, but whoever loses his life for my sake will save it.

갈라디아서 Galatians 2:20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I have been crucified with Christ. It is no longer I who live, but Christ who lives in me. And the life I now live in the flesh I live by faith in the Son of God, who loved me and gave himself for me.